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10회
밀알콘서트
Special Classic Concert

2013.04.23(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밀알복지재단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후원 국민일보 febc 극동방송 HERALD CTS 기독교TV

문의 02)3411-4664

사랑의 하모니, 제10회 밀알콘서트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 밀알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내사업장]

법인사무국	
나눔사업본부	070-8708-8178
경남지부	055-753-1456
전남지부	061-681-7179

장애인복지사업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밀알학교	02-3412-1133
밀알연구소	02-3411-4665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룹홈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그룹홈 동행의 집	055-753-1457
굿윌밀알스토어(송파점)	02-6913-9100
굿윌밀알스토어(도봉점)	02-6910-919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옥수그룹홈	031-705-3398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403-0078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2222
온유한주단기보호센터	031-418-9863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노인복지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3-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도봉고령자취업알선센터	02-993-1988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지역복지사업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아동보육사업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문화, 일자리사업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시에라리온	+232-79-15891
에티오피아	+251-911-03324
이스라엘	+972-52-547-1422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짐바브웨	+263-777-330-752
중국	+86-133-448-7401
케냐	+254-732-625-987
필리핀	+63-922-739-7017
탄자니아	+255-754-344-495
태국	+66-86-191-6122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2013 03·04
Vol.35

Since 1993
밀알복지재단 20주년 기념

www.miral.org
MIRAL

밀알

밀알복지재단

밀알

MIRAL

2013 03·04 Vol.35
www.miral.org



표지설명

아프리카 말라위 은코마 지역 아이들.
지난 2월 15일 말라위 은코마 지역에
장애인시설인 '치소모 밀알센터'가 문을 열었다.







Contents

인사말	04	사회통합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
사진이야기	06	평화 Peace
특집	08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 2
우리들의 이야기	12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해외이야기	16	에티오피아에서 크게 빛나는 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나눔세상	19	본격 나눔 대작전, [그냥 좋아 프로젝트]!
장애인식개선	22	인생을 왜 이 아이한테 올인하는지 아세요?
체험이야기	25	책이 가득한 아름다운 쉼터, 〈정독도서관〉
만남	27	"자선이 아닌 기회를" – 굿윌스토어 도봉점 개관맞이 인터뷰
2013년 밀알복지재단 예산총괄	30	
법인사무국 소식	32	
산하시설 소식	33	
회계보고	35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국내의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43개 산하시설과 2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5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 홍정길 **상임대표** • 정형석 **이사** •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손봉호 **명예이사** • 김귀자 노상헌 박완철 이민우 장형옥 정현만 정형철 **감사** • 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실행위원** • 강영실 강태인 강한주 권중돈 김귀자 김명환 김명희 김혜경 류제룡 박소영 신민선 이유진 임종학 정태충 정형석 **전문위원** • 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3 03·04 Vol.35

제호 • 밀알Miral(통권35호)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 **TEL** •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 • 이룸디지털(T. 02–2285–2656) **인쇄** • 동신인쇄 **능력나눔** • **사진**_정지영 **취재**_램프취재단, 밀알기자단 **글**_정새롬 카피라이터 조현진 방송작가

www.miral.org http://miralorg.tistory.com www.facebook.com/miral4664 www.twitter.com/miral1993

사회통합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강추위도 이제 한 풀 죽고, 새 생명이 역동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기운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도 출범했고, 지난 1월엔 스페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려 많은 국민들이 지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소식지에서 알렸듯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저희 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도 되었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기쁜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 도봉점이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굿윌스토어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는 '치소모 밀알센터'라는 장애인 시설을 개원하였습니다. 말라위 은코마 지역에 사는 장애인 8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지 장로교단인 Nkhoma C.C.A.P와 협조하여 소중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3일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밀알콘서트'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복지재단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형 석

2월 15일,
치소모 밀알센터
개소식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 Peace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따스한 시골마을처럼 느껴지는 이 곳은 아프리카 말라위 은코마 지역입니다.
이곳에 장애인지원시설인 '치소모(Grace=은혜) 밀알센터'가 건립되어 은코마 지역과 주변 지역 8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진_밀알복지재단

[특집] 밀알복지재단 설립 20주년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1화_ 약한자를 위한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화_ 이 아이들에게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3화_ 밀알사업 1 장애인복지
4화_ 밀알사업 2 노인복지 및 지역복지사업
5화_ 밀알사업3 해외사업
6화_ 20주년 대담



1998년 밀알학교 준공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모습

이 아이들에게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장애아 어머니가 이사장 홍정길목사에게 찾아왔다.
자폐아가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눈물로 간청한 것이다. 눈물을 머금은 어느 한 어머니의 간절함이었다. 홍정길 이사장(2대 이사장)이 시무하던 남서울교회 성도 중에는 자폐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홍정길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서울에 특수학교가 수 십 개 있었지만 자폐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육영학교 한 곳 밖에 없어서 매일 통학을 하는 일이 힘든 상황이었다. 홍 이사장은 고민 끝에 자폐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심하고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1월,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 일원동에 약 3천평 정도의 학교 부지를 남서울교회 후원금 31억 7천만원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부지가격부터 건축허가, 건축비 마련까지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건립은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 부지이므로 조성원가의 70%에 매입할 수 있는데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기에 70%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손봉호 초대 이사장은 당시에 이영덕 국무총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총리는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청원은 국가를 위해 좋다고 하며, 선처해 주셔서 학교법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부지를 매입한 후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주민들과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막무가내였다.

이후에 건축허가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 건축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압력을 받고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하였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몇 번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설득을 거듭한 끝에 만남이 이루



학교 건립시 반대시위

어졌지만 주민들은 절대로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밀알학교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바뀌었다. 학교의 건축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 · 도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밀알복지재단은 서울시 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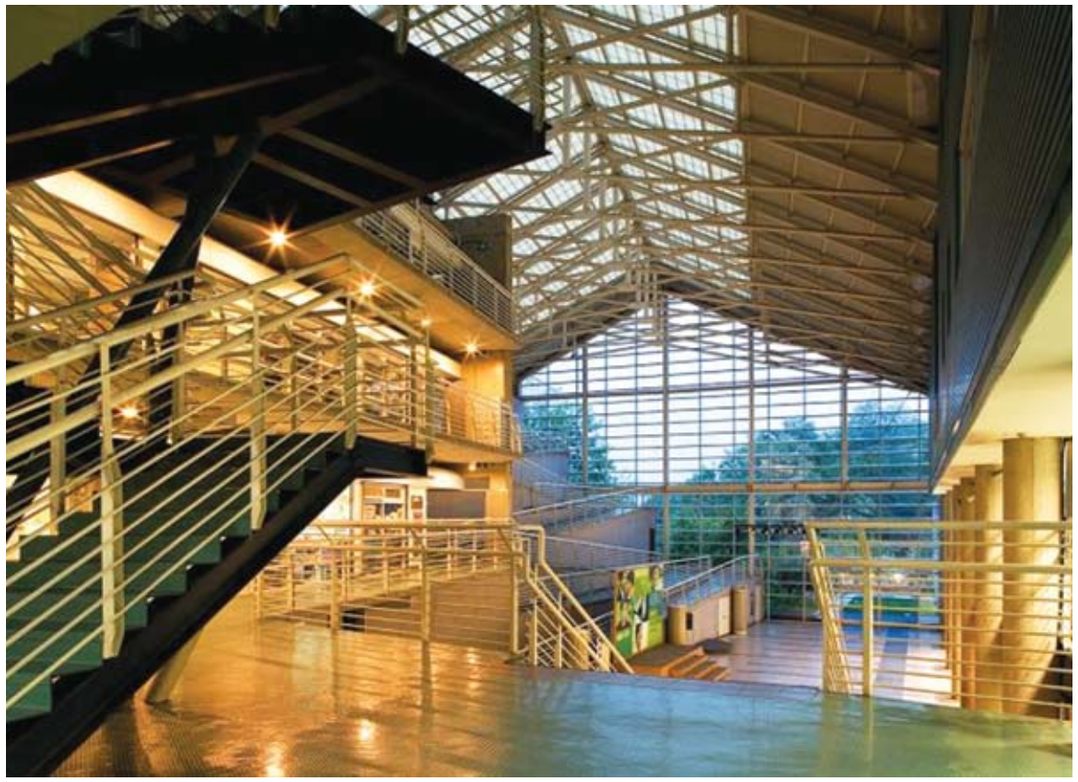
1회 입학식

1996년 1월 15일 오후 밀알학교 건축현장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몰려왔다. 흥분한 주민들은 몸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때, 천사처럼 나타나 밀알을 도와 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밀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매일 사무국에 출근하여 밀알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던 중 주민들의 물리적인 반대를 합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을 했다.
신속하게 진행된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판사)는 1996년 2월 21일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주민들의 방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판결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복지역사에 길이 기억될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공사는 진행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건축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대한 문제였다. 건축기간 동안 거액의 건축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홍정길 이사장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단을 했다. 밀알학교 건축에 전념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남서울교회를 사임하고 남서울은혜교회로 부임을 한 것이다.
홍정길 이사장은 남서울교회에서 받은 퇴직금 약 2억 원과 그동안 저축했던 적금을 수령하여 전액 건축헌금으로 내놓고, 밀알학교 건축 후원회장을 자원하였다. 부모님께 받았던 유산도 내놓았다.

밀알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통합공간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공간이기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봉사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밀알학교는 평소에는 밀알학교 가족들이 사용하지만 주말에는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고, 평일에도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간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언젠가 밀알학교 학부모 중 한 사람이 밀알학교가 좋은 점은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사회적인 낙인(Stigma)과 편견이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밀알학교가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통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건강한 생각과 비전 때문이다. 학교와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며, 학교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밀알학교에서의 모든 만남은 통합을 향하게 된다. 이것이 함께하면 통하고 행복해지는 밀알의 꿈이다.


밀알학교 내부모습

조현진 방송작가가 만난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능 방송작가 3년차 아직 막내라 정신없는 요즘이지만 따뜻한 세상을 맛보고 싶어 밀알복지재단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까지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조작가의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_ **2화** |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늘 설레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원래 사람을,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던지라 이 연재를 즐겁게 받아들였지만, 지난 방문 후 한참 가슴앓이를 하고나니 이번엔 내심 겁이난다.

이번에 만날 아이는 효리(13세, 여).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고 있는 아이다. 지하방이라 햇빛이 잘 안들어 왠지 더 쓸쓸한 느낌이 든다.

내가 만난 두 번째 천사, 효리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어머니 표정이 밝다. 내심 안심이 된다.

"효리야 안녕" 한 차례 경험을 하고 나니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한결 자연스럽다.

지훈이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맑은 표정을 갖고 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이.

"저도 처음엔 몰랐죠. 여느 아기들처럼 우리 효리도 참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였는데...설마 설마 했죠. 장애는 남 일인줄로만 알았어요."

효리는 레트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인지, 운동, 언어기능이 상실되는 병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 꾸준한 재활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지금 효리는 재활을 통해 혼자 앉아 있는 정도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

신앙으로 이겨낸 삶

3년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후 어머니는 앞이 캄캄하셨다고 한다.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며 이 과정을 이겨올 수 있으셨다고, 효리가 이만큼이나마 호전된 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믿고 계신다. 어쩐지 생각보다 표정이 밝으시더라니.


재활치료중인 효리

어머니는 효리를 돌보시며 경제생활을 하느라 생활은 조금 힘드신 듯했다. 효리가 재활을 받는동안만 틈틈이 일하고 계셔서 월 90만원 정도만 벌고 계신데,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 자격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셨다. 전 남편으로부터도 전세금 일부만 받은 후로 양육비 지원은 안 받기로 하셨다고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이혼, 때로는 삶이 원망스러웠다고 했다. 효리를 키우다보니 차가 필요해 최근엔 부모님과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차를 마련해 주셨다는 얘길 하면서 면목없어 하셨다.

지금 효리는 삼육재활초등학교에 다니며 본수업과 음악, 작업, 수영, 물리 언어, 심리운동치료를 방과후 수업에서 받고 있다. 바우처 치료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자가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조차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치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막막하죠. 제가 버는 돈으로는 우리 둘이 생활하고 효리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가족에게 계속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다.
'나는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하루다.
효리와의 만남이 내게 더 감사하다.



| 후원 신청 문의 |
02-3411-466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신한은행 140-006-896511
예금주 : 밀알복지재단

조현진 방송작가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KBS 예능작가 3년차, 세상을 더 깊이 만나고자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 조현진 작가의 개인사정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연재코너는 이번회로 종료됩니다.

허달무 코디의 "좌충우돌 에티오피아 한별학교 이야기"

좌충우돌 에티오피아 한별학교 이야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한별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달무코디가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연재하는 공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크게 빛나는 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며 밝게 웃는 아이들



야외 수업중인 한별학교 학생들

한별이라는 이름의 의미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아웅다웅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한별학교',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릭어로는 '한별 트므흐르트 베트'입니다. 설립자이신 정순자 교장선생님께서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고자 만드신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한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주 여쭤보곤 합니다.

"한별"은 에티오피아에서 크게(Big) 빛나는 별이 되라는 정순자 교장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Special) 독창적인(Unique) 마인드로 에티오피아를 밝힐 리더가 되라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과 컴퓨터 수업에서 전 가끔씩 아이들에게 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닌 이 나라의 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언제부턴가 정순자 교장선생님과 제가 딜라 시내를 나갈때면 곳곳에서 시민들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ㅂㅛㄹ"하며 어색한 발음으로 한별학교를 칭찬해주곤 합니다. 어느새 한별학교는 딜라 시내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귀한 산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니는 돈벌기 위해 이웃집에서 살아요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 중에 쓰낫 메스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 말에 에이즈라는 몹쓸 병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다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마저 에이즈 보균자로서 병색이 만연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입니다.

쓰낫은 언니가 둘 있는데 맏언니는 작년에도 쓰낫과 함께 한별

학교를 다녔고, 둘째 언니는 다른 정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언니들이 올해 개학을 하기 전에 모두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15살, 14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려운 형편을 견디다 못해 결혼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학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에티오피아의 여권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멋진 직업을 갖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6~7학년을 마치면 많은 여학생들이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쓰낫에게 언니는 어디갔느냐고 물었더니 천진난만하게 쓰낫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는 돈벌러 옆집에서 살아요."

건물에서 물이 새요 !!!!!

하루는 타데세라는 일꾼이 허겁지겁 오피스로 들어와서 막 뭐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교장선생님은 듣자마자 타데세와 함께 어디론가 나가셨고, 이내 교장선생님의 호통소리가 온 학교를 진동했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정순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와서 하는 말이 건물에서 물이 샌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그곳을 가보니 오피스의 개수대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오피스에서 식사를 하는터라 물을 늘 길어와서 설거지를 하는 게 불편함을 느껴 물탱크에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오피스에서도 수도처럼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타데세는 개수대를 통해 물이 떨어지는 걸 처음 보고서 건물에서 물이 새는줄 알았고 큰 일이라 여겨져 황급히 오피스를 찾아왔던 거죠. 에티오피아에서는 보통 건물 바깥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바깥에서 모든 물작업을 하기 때문에 설마 안에서 물을 사용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제외한 모든 한별의 식구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마치 지능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순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이 답답해서 화가 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한별학교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견문이 넓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좌충우돌 한별학교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한별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펼쳐질 다른 나라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정새롬 카피라이터가 직접 경험한 "밀알의 나눔세상 돋보기"

정새롬카피라이터가 전하는 나눔이야기 공간입니다.
밀알복지재단에 후원중인 정카피라이터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나눔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서명한 뒤 '회색리본'뱃지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본격 나눔 대작전,
[그냥 좋아 프로젝트]!

밀알에 글을 연재하기로 마음먹은 뒤 저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소하지만 어마어마한 생각, 바로 제 자신이 하나의 작은 NGO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 생각에서 뻗어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를 가만히 둘 리 없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삶의 작은 소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즐거움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고 그 결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의 탄생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마음에 여유가 없던 어느 오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그 시작이었죠. 재미있는 나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곧바로 노트를 펼쳐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밀알과 인연을 맺으며 알게 되었던 '회색 리본 캠페인'과 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나눔 프로젝트! 그 이름은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냥 좋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고른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저의 일생 동안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죠. 그렇다면 저는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짝 빛나는 회색 리본을 전달해주는 것.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는 리본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손가락까지 걸면 프로젝트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 만들어진 웃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다'라는 감정만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깊어지는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 매력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타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최소 하루 정도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더 나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를 자연스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콕 찝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도 알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들의 웃음과 행복이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작은 NGO'가 되어 보겠다는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땀과 정성을 들여 땅을 일구는 것처럼 저는 저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람들의 마음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반하게 닦인 그 밭에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회색리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저를 낚아 올렸던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력은 긍정의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목은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겠지만 과정 속에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나면 이전보다 한 뼘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장은 삶의 또 다른 소동들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며 더 큰 나눔을 위한 배포가 되어 갑니다. 나눔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용기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도 매력이면 갈수록 빠져드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근 2년 만에 만난 대학 친구들과 선물, 편지 그리고 회색리본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미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버린 친구가 저에게 리본을 몇 개 더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유 있게 챙겨간지라 여분을 꺼내 주며 왜인지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의 '작은 NGO'가 느리지만 의미 있는 싹을 틔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근 한 달의 시간이 흘러 벌써 여섯 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된 지금, 저는 또다시 누군가를 생각하는 데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무던히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라지 않는다면 나눔의 의미도 퇴색되어 버릴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끊임 없이 즐거운 생각을 만들어 내고, 연결 지어보고 새로운 일을 꾸미는 것은 아마도 저에게 주어진 평생의 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머리 속에도 반짝이는 나눔의 아이디어가 스치고 있다면 잠시도 지체 말고 노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 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새롬 카피라이터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꾼입니다. 현재 이랜드 리테일의 웹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나눔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꾼'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 행복하다

오마이뉴스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아부모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캠페인입니다.



글 _ 김혜원 기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사진** _ 추연만 작가 (재능나눔)

"인생을 왜 이 아이한테 올인하는지 아세요?"

흔히 '장애아'라고 하면 '불쌍하다' '안 됐다' 등의 말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행복하다' '네 덕분에 산다'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사회의 편견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사는 그들. 〈오마이뉴스〉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이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 그림은 밀알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 세준이(박세준 · 14)의 작품이다.

"열 살 무렵, 세준이도 저도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울며 기도했어요. 세준이를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요. 그 후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세준이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모자란 아이, 부족한 아이, 바보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 착한 아이, 행복한 아이가 되었거든요."

• 서번트증후군은?

자폐성 장애 등 뇌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10%에게 나타난다는 서번트 증후군은 음악, 미술, 계산, 암기 등 특정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세준이 엄마(윤혜선 · 47)는 세준이의 남다른 능력(서번트증후군)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약한 아이, 부족한 아이, 남에게 손가락질받는 아이였던 세준이가 귀한 재능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천재적 재능, 특별한 능력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세준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런 작업을 통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때는 두세 살 무렵.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선천적 장애라고 했지만, 엄마는 세준이의 장애가 엄마인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늘 미안했었다.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세준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의료 사고라고 확신해요. 진통도 없었고 양수도 터지지 않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의사가 촉진제를 맞고 유도분만을 하자고 했어요.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의사의 제안에 응했고요. 촉진제를 맞았는데도 진통은 오지 않고 결국 양수가 다 빠지도록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촉진제 과다로 전신마비까지 온 거예요. 아기도 저도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세준이는 엄마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아이"

장애와 재능을 동시에 가진 아이. 재능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세준이는 집착이 특히 심한 아이였어요. 뭐든 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죠. 신발도 같은 것 한 가지만 신어야 하고, 길도 늘 같은 길로만 가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어떤 때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대여섯 시간을 길에서 씨름하기도 했고요. 새 신발을 안 신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집까지 맨발로 온 일도 있어요."

한 번씩 아이와 실랑이를 하고 나면 엄마는 그만 '파김치'가 돼버리고 만다. 체력적인 한계와 우울감, 실패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엄마라는 자괴감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나쁜 마음을 먹게 했다. 엄마는 세준이와 함께 살기 위해(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공부를 했다. 어차피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좀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엄마에게도 공부가 필요했다.

"세준이는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아이예요. 엄마의 무진장한 노력을 원하는 아이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엄마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지시켜주는 아이예요. 순간이지만, 엄마를 기대할 때 보이는 세준이의 반짝이는 눈빛,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입을 열어 '어머니'를 불렀을 때의 기쁨, 또 다른 뭔가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세준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준이 엄마는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답한다. 머릿속에 이미 세준이의 행복한 미래까지 그려두었다는 것이다.

"세준이가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장애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배려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시선이 바뀌길 바라요. 장애가 있지만, 기회와 복지만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꼬마화가와 그의 엄마, 힘내시라!

인터뷰 중에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던 세준이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세준이가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3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엄마는 숨이 차도록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세준아~ 엄마가 좀 늦었네. 기다렸지?"

기다리던 엄마가 보이지 않아 불안했던 것일까. 잠시 굳어있던 세준이의 표정이 엄마를 보자 밝게 펴진다. 이제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세준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꼬마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세준이. 아직은 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엄마의 바람 대로 재능으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그날까지 행복한 꼬마화가 세준이도, 세준이의 영원한 팬 엄마도 힘내시라!





장애인이 되어 떠나는 여행기 '램프의 조금 특별한 소풍 – season2'

하루 동안 장애인이 되어 소풍을 떠나 보아요.
〈특별한 소풍〉 코너를 통해 비장애인 주인공들이 잠시 장애인이 되어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소풍의 주인공의 자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첫 순서는 밀알 기자단과 함께 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아름다운 쉼터
〈정독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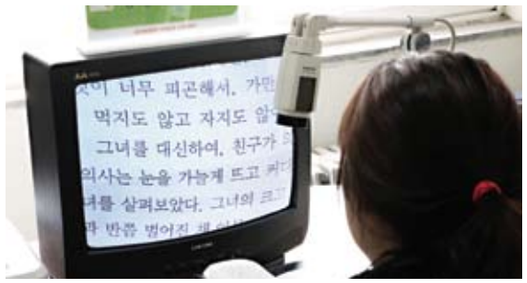
삼청동과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미술관과 아름다운 한옥, 많은 먹거리와 예쁜 카페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 여러가지 중에서도 보석처럼 돋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정독 도서관입니다.

정독 도서관은 삼청동 거리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느 학교의 교문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도서관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옛 경기고 자리를 도서관으로 바꾼 것이니 그렇게 여겨지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오래된 학교 건물터

를 그대로 도서관으로 바꿔 놓은 덕분에 도서관은 어딘지 모를 운치와 멋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니 오늘 체험을 하게 될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임 기자인 소해준 기자와 김경은, 임수연, 한윤정 기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최영서 실장님이 도서관 시설 안내를 도와주셨습니다.

1층 어문학실에서 휠체어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정보누리터라는 공간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책과 확대기 텍스트를 소리로 바꿔주는 장비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 빈도가 적어 점자책이 적다는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정독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내부 시설 외에도 장애인을 위해 무료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아주 편리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도서 전시회, 북소리 버스, 점자명함 만들기, 장애체험스쿨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들에게도 책을 보는 것 외에 정독도서관이 여유롭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독도서관 이용안내_ 02)2011-5732 / http://jdlib.se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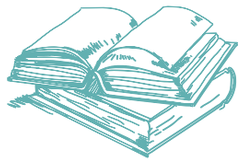
• 밀알기자단의 체험 이야기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임수연 기자와 한윤정 기자는 시간이 갈 수록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연인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각장애인이 되어본 임수연 기자는 자신의 눈과 같은 한윤정 기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하고 안전을 책임진 한윤정 기자도 임수연 기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탄 김경은 기자는 자주 '깩'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탄 휠체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르막을 오르거나 작은 턱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소해준 기자가 뒤를 잘 받쳐준 덕분에 너무 편한 체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으니 이 둘의 호흡도 꽤 잘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넓직한 식당, 서울 교육 박물관, 아름다운 정원 등 정독 도서관에는 책 말고도 즐거운 공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소풍을 가는 마음으로 방문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만 주말에는 삼청동 방문객이 도서관에 주차를 하려고 길게 줄을 서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국역에서 도서관 앞 까지는 이동이 어렵지 않은 편 입니다만 도서관 입구에서 휠체어로 입장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취재를 허락한 정독도서관과 안내를 도와주신 최영서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만남은 밀알복지재단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도봉굿윌스토어 신입직원들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장애 이웃들이 땀 흘려 일하고, 삶의 보람을 찾도록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사회통합을 실천해왔다. 그 결실중 하나가 〈굿윌스토어〉이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송파점에 이어 2호점인 도봉점이 2월 28일 개관했다. 준비부터 문을 열기까지 과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팀 정선기님(이하 정)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밀알_ 굿윌스토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정_ 안녕하세요. 저희 굿윌스토어 도봉점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써 일의 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펼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삶을 증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라는 슬로건을 지향하는 굿윌스토어 도봉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물건을 기증받고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분들의 급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Q 밀알_ 본인 소개(하시는 일)와 도봉점 홍보 멘트를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정_ 저는 기획관리팀 정선기입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및 후원, 직업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관식을 마친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분들의 선한 일터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증과 판매, 홍보, 자원봉사 부탁드립니다.

Q 밀알_ 개관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_ 저희가 근로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면서 평가 및 면접을 진행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평가했던 근로인 한명한명이 더욱 소중한 것 같고요 새로운 옷을 입은 평가실을 보면 왠지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Q 밀알_ 현재 일하는 분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장애인, 비장애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_ 현재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진다면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70명, 노인 22명 총 100명까지 추가고용 계획입니다.

Q 밀알_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_ 모든 사람은 생애주기에 따라 이에 따르는 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분들은 그들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에서 위 기회가 박탈되거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지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비록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겠지만 일의 힘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받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서 오는 기쁨이 더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들 역시 장애자녀 및 형제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소될 수 있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십니다.







2월 28일 개관식 모습

Q 밀알_ 장애인 채용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나요? 실무를 하기 전에 교육 과정 등도 따로 제공을 하시나요?

정_ 채용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로는 입사지원을 해주시는 분에 한하여 서류접수, 2차로는 직업평가, 3차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위 3가지 과정에서 모두 합격하신 분들이 채용확정이 되게 됩니다.

Q 밀알_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일하시는 분들 급여수준을 여쭤봐도 될런지요?

정_ 현재는 수습사원으로서 월 22만원을 받고있으나 입사 후 3개월이 넘어 근로인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공합니다. 월기준 75만원 정도입니다.

Q 밀알_ 일하시면서 재미있던 경험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셨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_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에 기뻐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떨리는 모습으로 평가와 면접을 받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잘 적응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Q 밀알_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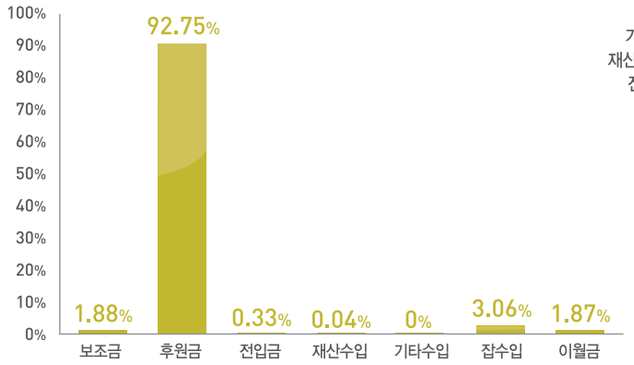
정_ 지금까지 저희 굿윌스토어 도봉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을 품고 도약을 하고자 준비하는 굿윌스토어. 오늘의 마음을 잊지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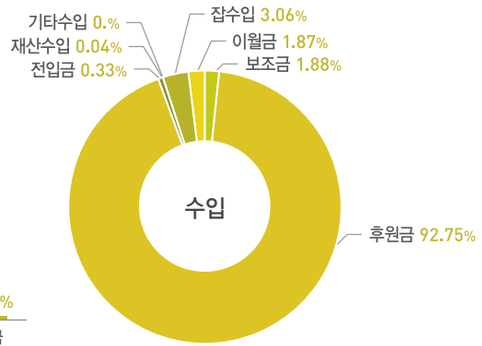
• 굿윌스토어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T. 02-6910-9191)
www.goodwilldobo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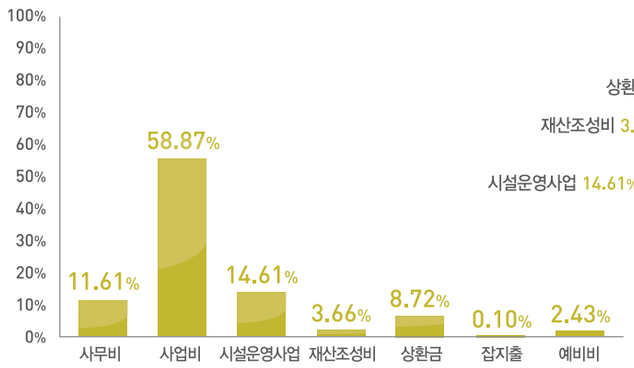
2013년 밀알복지재단 예산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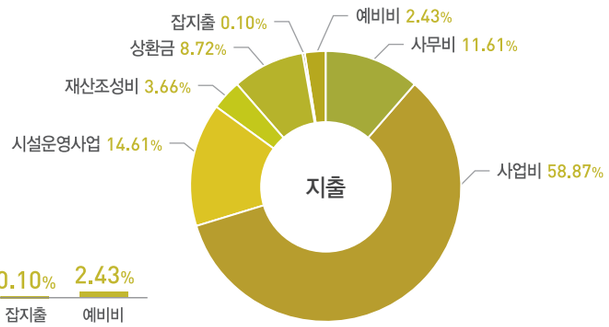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국내의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43개 산하시설과 2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5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입부 |





| 지출부 |

2013년 밀알복지재단 예산

| 수입부 |

단위:천원

구분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총계	9,903,776	10,116,000
보조금	2,760,784	189,900
후원금	6,512,000	9,382,980
전입금	40,000	33,000
재산수입	6,000	4,500
사업수입	82,480	0
기타수입	245,000	310,000
잡수입	35,000	6,120
전년도 이월금	222,512	189,500

| 지출부 |

단위:천원

구분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총계		9,903,776	10,116,000
사무비	소계	1,604,160	1,174,402
	· 인건비	985,400	869,082
	· 업무추진비	69,000	61,200
	· 운영비	549,760	244,120
사업비	소계	3,356,640	5,955,580
	· 국내사업	1,537,720	2,150,611
	· 해외사업	1,076,000	2,234,779
	· 자원개발사업	499,200	1,000,898
	· 홍보사업	96,020	180,816
	· 경영기획사업	147,700	388,476
시설운영사업		3,955,194	1,478,053
재산조성비		512,000	370,000
상환금		388,937	882,354
잡지출		10,000	10,000
예비비		76,845	245,611

밀알복지재단 2013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법인과 산하시설을 포함한 총 예산은 53,666,561,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9,097,691,000원이 늘어났다. 사업별로 법인 10,241,605,000원, 장애인복지 21,625,642,000원, 노인복지 10,256,847,000원, 지역사회복지 7,200,796,000원, 아동보육 4,341,671,000원이 책정되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22,903,867,000원, 사업수입 16,844,857,000원, 후원금 10,588,831,000원, 법인전입금 1,329,253,000원, 기타수입 1,999,753,000원 등이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22,196,117,000원, 운영비 3,685,704,000원, 사업비 24,527,491,000원, 기타 3,257,249,000원 등이다. 산하시설과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 예산은 10,116,000천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무국 소식



SKY하늘안과, Beautiful Mind캠페인 참여

1월 14일(월), SKY하늘안과와 밀알복지재단이 사회공헌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SKY하늘안과는 밀알복지재단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에 동참한다.



배우 이요원, 밀알복지재단 독거노인돕기 자선화보 촬영

패션매거진 인스타일이 창간 10주년 기념 자선화보 촬영을 했다. 이요원은 밀알복지재단 독거노인 돕기 후원에 참여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저소득장애아동의료비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

1월 9일, 밀알복지재단은 외환은행나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전달 받았다. 전달식에는 권택명 외환은행나눔재단 상임이사와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MVP성형외과, 기부금 전달

1월 17일, MVP성형외과의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압구정 MVP성형외과에서 진행되었다.



위담한방병원, 밀알복지재단과 사회공헌 제휴 협약식 진행

2월 7일(목), 서울 대치동 위담한방병원 회의실에서 밀알복지재단과 위담한방병원의 사회공헌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밀알복지재단 NGO 해외봉사단 파견

밀알복지재단은 아동지원사업을 위해 활동할 2명의 사회복지사를 NGO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했다. 이효열, 이하영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거쳐 각각 네팔과 마다가스카르로 파견되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겨울음악캠프 진행

2월 18일, 밀알복지재단이 발달장애아동 28명과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첼로앙상블 '날개'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밀알아트센터에서 일일캠프 및 첫 합주회를 진행했다.



라이베리아 주니어보, 각막이식 수술 진행

작년 SBS 희망TV를 통해 방영되었던 주니어보의 각막이식 수술이 1월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뤄졌다.



말라위 치소모 밀알센터 개소식

2월 15일 말라위 은코마 지역에서 밀알복지재단 치소모 밀알센터(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개소식은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손봉호 이사 등 법인사무국 임직원 6명을 비롯하여 현지 장로교 교단의(Nkhoma C.C.A.P) 총회장 및 지역대표자 등 현지인 300여명이 함께하였다.



WY치과의원, 밀알복지재단과 사회공헌 제휴 협약식 진행

2월 19일(화), 신사동 WY치과 본원에서 밀알복지재단과의 사회공헌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WY치과는 빈곤장애인을 위한 의료비기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하시설 소식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부모자녀프로그램-요리활동'

공동육아나눔터 momo에서 2월 6일(수) '부모자녀프로그램-요리활동'으로 '네모 김밥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S&K 인터네셔널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 후원금 전달식'

S&K 인터네셔널이 강남구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이 1월 25일(금)에 진행되었다.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적응활동 JOYFUL 진행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JOYFUL활동이 1월 25일(금) 뚝섬 눈썰매장에서 진행되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사랑나눔음악회 실시

2013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해 〈코레일과 함께하는 2013 평창동계 스페셜 올림픽 투게더 위캔〉 "사랑나눔 음악회"를 실시하였다.



우리플러스작업장, 헬스프로그램 신설

우리플러스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주2회 헬스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한우리주간보호시설, 반고흐전 관람

한우리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1월 3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반고흐전을 관람하였다.



밀알보호작업장, 자치회의 진행

밀알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의 대인관계형성 및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자치회의 및 생일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밀알베이커리, 직업훈련과정 복지TV 보도

밀알베이커리 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의 제빵 직업 훈련 과정을 촬영하고 근로장애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2월 16일~18일까지 복지TV뉴스에 보도되었다.



굿윌스토어 홍보대사 해머링맨 위촉

광화문의 랜드 마크인 흥국생명빌딩 해머링맨이 지난 11월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굿윌스토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시민들에게 굿윌스토어를 알렸다.



나눔사업본부 개소식 진행

밀알복지재단은 후원의 효율적인 방법과 실적 향상을 위해 2월 15일(금),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위치한 나눔사업본부 개소식을 진행했다.



2013년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2013년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2월 6일(수)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어울림 한마당 윷놀이 대회 실시

새해를 맞이하여 도봉구 관내 39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 어울림 한마당 윷놀이 대회를 실시하였다.

산하시설 소식



도봉실버센터 개원 8주년 기념식

'사랑으로 섬기는 도봉실버센터 개원 8주년 기념식'이 1월 30일(수) 도봉실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해피설날 행사

2013년 2월 6일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과 아리솔 어린이집 천사들이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강당에서 해피 설날 행사를 마련하였다.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2013년 설명절 행사 실시

2013년 2월 8일, 설날을 맞이하여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을 위한 설 명절 행사가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면일 어린이집 제 27회 졸업식

2월 16일(토) 면일 어린이집에서 제 27회 졸업식이 이루어졌다.



목련 어린이집, 장애아동 방과 후 겨울캠프

1월 17일~18일 장애방과 후 공룡반에서 겨울 캠프를 진행했다.



밀알주단기보호센터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그램 진행

밀알주단기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시설이용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수) 서울 숲 안에서 진행 중인 나비 체험전에 다녀왔다.



부암 어린이집, '기쁜 날 좋은 날' 행사

2월 7일, 홀로 사시는 할머님 두 분을 초대하여 아이들이 함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방문

2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이트진로(주)에서 김과 떡세트를 후원받아 저소득어르신 100가정을 방문하여 김과 떡세트를 전달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명함사업 실시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명함사업 관련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관련 전문인력도 지원받게 되었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경영 시스템 인증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3년 1월 15일(화) 경기복지재단에서주최하는 2012년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인증패 전달식 및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온유한주단기센터, 2013년 동계 사회복지 현장실습

2013년 동계방학기간에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 2명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3주간 참여하였다.



중림 어린이집, 졸업여행

1월 31일, 밝은 반(만5세)이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졸업여행의 테마는 눈꽃열차여행이다.



청마을 어린이집, 설날행사 진행

노인정 효봉사, 만두빚기, 민속놀이등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하는 예절도 익혀 보았다.



사회적기업 청밀, 〈사랑나눔 KIT행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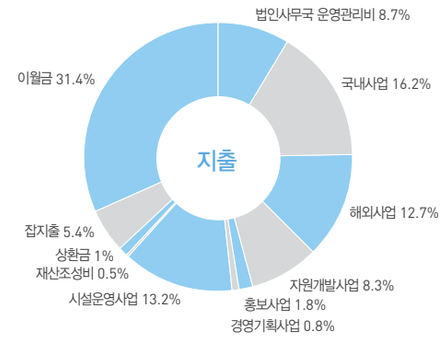
청밀은 2월 4~6일(월~수) 민족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나눔 KIT행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1월~2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단위:천원

수입			
총계		1,933,269	100.0%
보조금	소계	87,844	4.5%
	· 기타보조금	87,844	100.0%
후원금	소계	1,295,352	67.0%
	· 비지정후원금	966,936	74.6%
	· 지정후원금	328,416	25.4%
잡수입		4,443	0.2%
이월금		545,631	28.2%





단위:천원

지출			
총계		1,933,269	100.0%
법인사무국 운영관리비	소계	168,637	8.7%
	· 인건비	143,063	84.8%
	· 업무추진비	7,044	4.2%
	· 운영비	18,530	11.0%
국내사업	소계	314,006	16.2%
	· 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	41,820	13.3%
	· 장애인의료지원사업	75,595	24.1%
	· 장애아동교육지원사업	24,015	7.6%
	· 인식개선사업	136,024	43.3%
	· 장애인고용인건비	17,122	5.5%
	· 긴급지원사업	1,026	0.3%
	· 자원봉사관리사업	108	0.0%
	· CSR협력사업	18,296	5.8%
해외사업	소계	245,070	12.7%
	· 아동결연사업	78,098	31.9%
	· 아동지원사업	10,000	4.1%
	· 장애인지원사업	23,998	9.8%
	· 보건의료사업	14,327	5.8%
	· 분야별특별사업	50,961	20.8%
	· 해외사업국운영지원	55,333	22.6%
	· 국제협력사업	12,354	5.0%
자원개발사업	소계	159,619	8.3%
	· 미디어개발사업	72,306	45.3%
	· 회원서비스사업	69,928	43.8%
	· 온라인사업	16,241	10.2%
	· 오프라인/교회협력사업	1,143	0.7%
홍보사업		34,654	1.8%
경영기획사업		15,692	0.8%
시설운영사업	소계	254,967	13.2%
	· 장애인복지사업	132,868	52.1%
	· 노인복지사업	78,111	30.6%
	· 지역복지사업	20,737	8.1%
	· 아동복지사업	14,250	5.6%
	· 기타사업(문화, 일자리 등)	9,000	3.5%
재산조성비		10,001	0.5%
상환금		19,052	1.0%
잡지출		105,303	5.4%
차기이월금		606,269	31.4%